

"사위하는 박원순 시장 속옷 챙기기, 女비서만 시켰다"

"박원순의 서울시에선 성희롱은 일상이었다"
여성의전화가 공개한 사례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서울)시장실과 비서실엔 일상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엔 박 전 시장의 비서들이 평소 각종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정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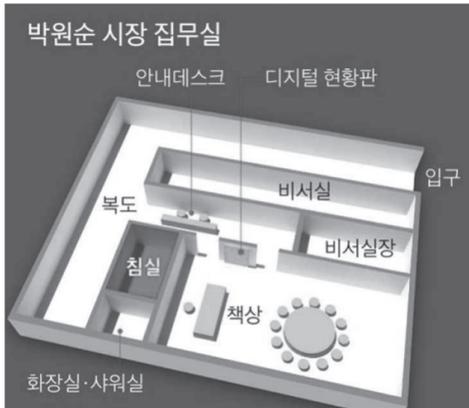
이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마라톤에 참석했을 때 '여성 비서가 오면 (마라톤) 기록이 더 잘 나온다'며 여비서들에게 주말 새벽 근무를 사실상 강요했다. 또한 박 전 시장에게 일상적인 결재를 받을 때도 '시장님 기분 어땠냐' 등 박 전 시장의 심기를 행기는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또한 비서들은 박 전 시장이 운동을 마치고 벗어놓은 속옷을 집어 봉투에 담아야 했고, 침대에서 낮잠을 자는 박 전 시장을 직접 깨우는 일도 요구받았다. 특히 이 경우엔 '여성 비서가 (시장을) 깨워야 (박 전 시장이) 기분나빠하지 않으신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A씨 측은 또 "시장의 혈압을 재는 것도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됐다"며 "박 전 시장은 자기(피해자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 기록에 안좋다며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반기 때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7월 근무지를 이동했다가 올해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받았다고 알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



▲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식 취임식 전에 집무실 바로 뒤에 마련된 내실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 등에 신고된 바 없었다"는 입장에 대하여

7월 15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 전 비서실장 4인, 서정협(현 행정1부시장), 허영(현 국회의원), 김주명(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원장), 오성규(현 박원순 캠프(광화문팀)) 전 비서실장은 '이구동성'으로 "이상한 낚시를 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정협 현 서울시장 관대대행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7월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어느 서울시 관계자는 "공식 신고 접수된 바 없었다"고 말하며 공식 신고가 없었으니 사안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이 알아야 할 사안이고 무엇을 몰랐던 것인가.

시장실과 비서실은 일상적인 성차별,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

□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시장실에서 그대로 들어가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

성의전화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당시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 했으나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성의 전화가 발표한 입장 전문]

서울시는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조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에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그간 상당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단 등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강력한 의문을 표하며, 이 때까지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건의 성격과 문제에 대해 다시 짚는다.

■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강요된 성희

롱, 성차별적 업무

비서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 성격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비서의 평가와 교체 여부 역시 이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이는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의해 요구되고 지속되었다. 시장의 '기분 좋음'은 상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여성 직원의 왜곡된 성역할 수행으로 달성되었고, 이는 사실상 성차별이며 성폭력 발생과 성역할 수행에 대한 조장, 방조, 묵인, 요구에 해당한다.

□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

□ 결재 받을 때 시장님의

기분 상황을 확인. 비서에게 "시장님 기분 어때요? 기분 좋게 보고 하세요..."라며 심기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 결재 받은 후 "기분 좋게 결재 받았다"고 인사

□ 시장이 구두로 긴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 날 그 시각 시장의 기분이 중요하며 시장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원하는 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비서에게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을 암묵적, 명시적 요구

□ 박 전 시장은 승진을 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원칙을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칙에 따라 전보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그런 걸 누가 만들었냐", "비서실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 만류와 불승인

■ "비서실장들은 몰랐다",

저다 주어야 함. 샤워를 마친 시장이 그대로 벗어두면 운동복과 속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냄

□ 시장은 시장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잤. 그런데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은 여성 비서가 해야 했음. 일정을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깨워 다음 일정으로 가면 효율적이나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며 해당 일이 요구됨

□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는 이들이 비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시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이 "여기 비서는 얼굴로 훑나봐" 등의 성희롱적 발언

□ 시장은 건강 체크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잤. 피해자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으나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됨. 박 전 시장은 "자기(피해자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아" 등의 성희롱적 발언에도 업무 지시

□ 이 사건 피해자는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함. 한번이 좌절된 끝에 2019년 7월 근무지 이동 후, 2020년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도 이야기했으나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음

■ 성희롱·성추행의 잦은 발생,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상의 개선 필요

서울시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피해 제보는 비단 이번 사안만이 아니다.

□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9 페이지에 계속)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에서 "행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

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다" "제가 (임원을)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했다. 자신이 지시한 부분은 빼놓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은 관여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말이 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려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앞

으로 각종 선거 TV 토론에선 상대 질문에 거짓말로 답해도 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TV 토론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니 법원 판결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대법원이 이 지사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넘길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대로 됐다. 그래도 대법관 12명 중 5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만큼 문제 (...10 페이지에 계속)

송정현 변호사 사무소

www.songlaw.ca

부동산, 상법, 회사법, 이민법, 유언/상속법

T: 403-764-0231 / E: daniel@songlaw.ca

#312 - 14 Street NW, Calgary, Alberta T2N 1Z7